

‘복음뉴스’ 창간 3주년... 2월2일 만나교회서 감사예배

창간 3주년을 맞는 인터넷 기독교 언론 ‘복음뉴스’(www.bogeumnews.com 발행인 김동욱 목사)가 2월 2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창간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복음뉴스가 걸어온 3년은, 하나님께서 복음뉴스를 직접 창간하셨고 운영하고 계심을 간증케 하신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기간이었다”며 “복음뉴스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뉴스가 3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복음뉴스가 더욱 공정하고 당당한 기독교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하고 당당한 뉴스’를 지향하고 있는 복음뉴스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이나 광고 요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내 주는 후원금과 기업 광고 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목사는 일부 인사들

로부터 “교계 단체를 향한 쓴소리를 많이 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복음뉴스를 창간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다른 매체들과 대동소이한 기사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계와 교회, 목회자들을 건전하게 세우기 위한 쓴소리와 비판은 복음뉴스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복음뉴스 창간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뉴욕만나교회의 주소는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11358, 복음뉴스의 연락 전화 번호는 516-241-6024이다.



김동욱 목사.